

2014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A 형]

1	4	2	3	3	5	4	3	5	5
6	4	7	5	8	5	9	4	10	3
11	3	12	4	13	1	14	4	15	4
16	4	17	3	18	4	19	2	20	4
21	2	22	1	23	4	24	3	25	4
26	5	27	5	28	3	29	2	30	3
31	2	32	3	33	5	34	2	35	2
36	4	37	1	38	3	39	1	40	3
41	5	42	2	43	2	44	2	45	1

[화 법]

1. [출제의도] 화법의 특성 파악하기

이 대화는 '선생님'이 '은영'과 갈등을 겪고 있는 '민지'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대화의 대화 참여자인 '선생님'은 '은영'과 갈등을 겪고 있는 '민지'에게 조언을 하고 있을 뿐 '은영'과 갈등을 겪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힘없는 목소리'는 반언어적 표현이며, '선생님'이 '민지'의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을 보고 '민지'의 상황을 짐작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우리 사이에 숨길 것이 뭐가 있니?'는 대화의 흐름상 대화 참여자가 서로 친근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민지'의 발언을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선생님'은 '민지'와 '은영'이 단짝 친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고, 이를 통해 '민지'의 심정에 공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민지'는 '선생님'의 발언 내용 중 일부를 반복하여 '선생님'의 의도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2. [출제의도] 대화의 내용 추론하기

'선생님'은 '민지'에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나'의 감정이 어떤지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을 물음의 형식으로 돌려 말하라고 조언해 주고 있다. '너를 오래 기다리다 보니 힘들어서 화가 좀 나네.'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며, '다음부터는 늦지 말고 약속시간을 지켜 줄래?'라는 것은 물음의 형식으로 돌려 말한 것이다.

① '넌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 것 같아.'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②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④ '친한 사이일수록 약속 시간을 꼭 지켜야 한다는 걸 잊지마.'는 물음의 형식이 아니다. ⑤ '너는 시간관념이 없는 것 같아.'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3. [출제의도] 대담에 드러난 말하기 전략 파악하기

'김 교수'의 말에서는 '진행자'의 말을 일부 수정해서 말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① '진행자'의 마지막 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② '진행자'의 '아, 그랬군요. 그게 문제였군요. 성급한 추진 방식으로 보급이 중단되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③ '진행자'의 첫 번째 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④ '진행자'는 '김 교수'에게 한글의 세계화와 관련된 방안 중 하나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에 '김 교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 하나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4. [출제의도] 강연에 사용된 말하기 전략 파악하기

이 강연에서는 자신의 경험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강연 앞부분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중요성을 제시하여 청중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② 학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 화제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④ 가슴 압박 단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자료를 제시하여 강연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심폐소생술을 3단계로 구분하여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5. [출제의도]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 이해하기

강연의 뒷부분에 심폐소생술에서 반복하는 단계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2의 비율로 반복합니다.'라고 진술되어 있으므로 의식 확인 및 119 신고 단계부터 반복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은 '환자를 바로 눕힌 후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라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은 '주변 사람들 중 한 명을 지목하여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자동제세동기가 있다면 가져올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은 가슴 압박 단계로, '팔꿈치는 펴고 팔은 환자의 가슴과 수직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은 인공호흡 단계로, '한 손으로는 이마를 뒤로 젖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줍니다.'라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 문]

6. [출제의도] 개요 초안에 맞게 글의 초안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개요 초안에는 건의 목적 및 운영 실태 제시, 장애인 셔틀 버스 배차 간격에 대한 문제점 제시, 장애인 셔틀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 기사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점 제시, 장애인 셔틀 버스 배차 간격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건의, 장애인 셔틀 버스를 운행하는 인력의 전문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건의가 제시되어 있는데, 글의 초안에는 장애인 셔틀 버스 배차 간격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건의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첫 번째 단락의 '장애인 셔틀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제 친구의 불편함을 덜어 주기자'와 '실제로 이 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적습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두 번째 단락의 '배차 간격에 대한 만족도가 45.4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두 번째 단락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버스 기사 부족하여 장애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세 번째 단락의 '장애인 셔틀 버스 기사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의무화하여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장애인 셔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버스 기사 외에 전문 교육을 받은 보조 인력이 차량에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초고 수정 과정에서 자료 활용하기

㉠에는 '정류장의 승하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에는 장애인 셔틀 버스를 탈 수 있는 승하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에서 장애인 셔틀 버스 이용 시 불편을 느꼈던

이유로 '원하는 목적지에 운행하지 않아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가)의 '중간 1'에 '장애인 셔틀 버스 노선의 다양성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함.'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나)의 두 번째 단락에 관련 내용을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② ㉢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가)의 '중간 1'에 '장애인 셔틀 버스 정류장 편의 시설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함.'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나)의 두 번째 단락에 셔틀 버스 운영상 문제점의 하나로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③ ㉣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운행되는 장애인 셔틀 버스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나)의 세 번째 단락에 장애인 셔틀 버스 배차 간격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장애인 셔틀 버스 차량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추가한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④ ㉤에서 리프트 없이 운행되는 차량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가)의 '중간 1'에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장애인 셔틀 버스 운행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함.'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나)의 두 번째 단락에 관련 내용을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8.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표현하기

또래상담 동아리 소개 글에는 '푸른나래' 동아리가 고민이 있는 다른 친구를 돕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 '고민하는 친구들 마음속에 ~ 푸른나래'로 '오세요.'를 통해 글의 내용을 반영하여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희망을 속삭일 수 있도록'에서 의인의 방식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햇살 같은 포근함'에서 직유의 방식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직유의 방식이 활용되지 않았다. ② 직유의 방식이 활용되지 않았다. ③ 의인의 방식이 활용되지 않았다. ④ 직유의 방식이 활용되지 않았다.

9. [출제의도] 작문 과정에서 글쓰기 전략 이해하기

'학생의 초고'는 학교홈페이지에 글을 쓰고 있지만, 사진이나 그림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교 홈페이지라는 공식적인 매체에 공연을 소개하는 글이므로 '-(으)입니다.'와 같은 높임의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 말한 대학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공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공연의 내용이나 공연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독자들에게 댓글과 메일을 통해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므로 매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유도하였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고쳐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공연의 내용과 그 공연을 보고난 후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글의 흐름이므로 ㉡은 앞문장과 뒷문장의 순서를 바꾸기보다는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은 중의성을 담고 있으므로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순을 바꾸어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주인공의 아름다운 노래'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은 '노래(와)'에 호응하는 문장성분이 빠져있으므로 서술어를 추가하여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은 '되다'와 '-어 지다'가 모두 피동사의 의미를 담고 있어

이중 피동어 되므로 '되기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㉔에서 '-던'은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거나 일이 완결되지 못함을 나타내는 어미로서 선택의 의미가 없으므로 '땀글을 다시든 베일을 보내시든'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문 법

11. [출제의도] 음운 변동 이해하기

'뜻하다'는 'ㅅ'이 'ㄷ'으로 교체되어 [뜻하다]가 되고, 'ㄷ'과 'ㅎ'이 'ㅌ'으로 축약되어 [뜨따다]가 된다.

① '꽃다발'은 'ㅌ'이 'ㄷ'으로 교체되어 [꼇다발]이 되고, 'ㄷ'이 'ㄸ'으로 교체되어 [꼇따발]이 된다. ② '넋두리'는 'ㅅ'이 탈락하여 [넉두리]가 되고, 'ㄷ'이 'ㄸ'으로 교체되어 [넉뚜리]가 된다. ④ '부엌문'은 'ㄱ'이 'ㄱ'으로 교체되어 [부억문]이 되고,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부영문]이 된다. ⑤ '색연필'은 'ㄴ'이 첨가되어 [색년필]이 되고,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생년필]이 된다.

12. [출제의도] 사전 활용하기

'이 킬로미터를 걸이라'에서 '이'는 '킬로미터'라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였으므로 '이²[2][1]'의 용례에 해당한다.

① '모자를 쓴 이'에서 '이'는 사람을 뜻하므로 '이'의 용례에 해당한다. ② 다의어는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뜻풀이가 있는 방식으로 사전에 제시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이보다'에서 '이'는 '보다'라는 조사와 결합하여 대명사로 쓰였으며, '이 점을'에서 '이'에는 관형사로 쓰여 조사가 붙지 않으므로 조사의 결합 가능 여부에 따라 품사를 구별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동음이의 관계는 사전에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13. [출제의도] 부사어의 특징 이해하기

㉔의 '엄마와'는 서술어 '앉았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으로, 생략할 수 없다. 그리고 '엄마와'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성분 부사어이다.

② ㉔의 '안'은 부정의 의미를 갖는 부사어로 서술어 '먹었다'를 수식한다. 그런데 '안'의 위치를 옮겼을 때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이 된다. 따라서 부정의 의미를 갖는 부사어는 수식하는 문장 성분의 앞으로 위치가 고정된다. ③ ㉔의 '아이에게'는 서술어 '주었다'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가리키는 부사어로 문장을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 된다. ④ ㉔의 '겨우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야?'에서 '겨우'는 체언 '하나'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그런데 '겨우'를 '하나를 겨우 만들었다는 거야?'처럼 위치를 이동하면 서술어 '만들었다는'을 수식하게 된다. ⑤ ㉔의 '땀'은 단어를 이어주는 부사어이다. 그런데 '땀'의 위치를 이동하면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이 된다.

14. [출제의도] 높임 표현 이해하기

㉔에서는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며, 조사 '께',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고, 종결어미 '-어요'를 사용하여 듣는 상대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㉔에서는 선어말 어미 '-시-', 조사 '께서', 특수 어휘 '드시다'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며, 종결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여 듣는 상대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㉔에서는 선어말 어미 '-시-',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으며,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고, 종결어미 '-테요'를 사용하여 듣는 상대인 삼촌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㉔에서는 주체(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

해 조사 '께서'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㉔에서는 주체를(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높일 때 사용하는 조사를 확인할 수 없다.

① ㉔에는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께'를 사용하고 있다. ② ㉔에서는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목적이야 나타내는 대상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③ ㉔과 ㉔에서는 종결어미 '-어요'와 '-습니다'를 사용하여 듣는 상대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높이고 있다. ⑤ ㉔과 ㉔에서는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다.

15. [출제의도] 연결 어미의 기능과 종류 이해하기

㉔의 '-려고'와 ㉔의 '-게'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목적'의 의미 관계로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㉔의 '-게'는 보조 용언인 '됐거든요'를 본용언에 이어 주는 기능을, ㉔의 '-고'는 보조 용언인 '있었는데'를 본용언에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보조적 연결 어미이다. ㉔의 '-고'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나열'의 의미 관계로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대등적 연결 어미이다.

예 술

[16~17] <출전> 캐롤 스트랜드, 「클릭, 서양미술사」

1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4단락에서 카라바지오가 창안한 테너브리즘이 공간을 회화적으로 재현한다는 점에서 선 원근법보다 진일보했다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바로크 미술이 극적인 면을 추구하여 미술에 생동감을 불어넣었다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르네상스 미술이 이성적이고 안정감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5문단에서 빛과 어둠을 대비시키는 카라바지오의 기법이 새로운 화풍을 낳는 창조적 자극이 되었다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테너브리즘이 공간의 깊이감과 인물의 양감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었다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작품 감상의 원리 적용하기

앉아 있는 마태오 일행과 서 있는 예수 일행은 서로 대조되어 안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안정적인 아름다움은 1문단에서 르네상스의 특징에 해당되므로 안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당시 대중들은 이상화된 성자를 보고 싶어 했고 범인(凡人)의 모습에는 반감을 느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② 그림의 오른쪽 예수 일행의 머리 위에 빛이 들어오고 있고, 4문단에서 빛은 예수의 신성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④ 그림에서는 빛과 어둠의 대비가 나타나고 있고, 4문단에서 이러한 요소가 감정적인 효과를 강렬하게 전달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⑤ 그림에서 마태오 일행의 모자 장식, 칼 등이 세부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3문단에서 이와 같은 요소가 감상자로 하여금 그림의 이야기 속에 함께 있는 듯이 느끼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과 학

[18~20] <출전> 대한열역학회, 「열역학」

18.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 이해하기

이 글은 체내에서 철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철 이온을 흡수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표제로는 '철의 평형 상태 유지 원리'가 적절하며, 부제로는 '철 이온의 흡수 과정을 중심으로'가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이해하기

2문단의 '헵철과 비헵철은 모두 십이지장에서 흡수된 후 혈장으로 이동하여 필요한 세포로 전달되는데, 이때 십이지장은 2가 철 이온의 형태로만 철 이온을 흡수한다. 따라서 헵철은 그 자체로 흡수가 가능하지만 비헵철인 3가 철 이온은 반드시 2가 철 이온의 형태로 바뀌어야 흡수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1문단의 '그르데 체내에 있는 철은 장이나 피부 등의 세포가 그 기능을 다할 때 함께 소실되므로'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④ 3문단의 '2가 철 이온은 십이지장 내로 흡수된 후 페리틴이라는 물질의 형태로 저장되거나, 특정 단백질 통로를 통해 십이지장을 통과하여 혈장 내로 이동한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의 '헵철은 2가(Fe²⁺) 철 이온이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며'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는 혈장으로 이동한 철 이온이 세포로 흡수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㉔는 혈장, ㉔는 세포질, ㉔는 (수소 이온이 유입되기 전) 엔도솜 내, ㉔는 (수소 이온이 유입된 후) 엔도솜 내이다. 5문단의 '철 이온이 트랜스페린과 분리되면 엔도솜은 사라지게 되어 트랜스페린은 혈장으로 방출되고, 트랜스페린 수용체는 세포막 표면으로 이동함으로써 철의 흡수 및 이동에 다시 관여한다.'를 통해 트랜스페린은 세포질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혈장으로 방출되고, 트랜스페린 수용체는 혈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막 표면으로 이동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① 5문단의 '이 결합이 신호가 되어 세포 내로 이입이 일어나 엔도솜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5문단의 '엔도솜이 형성되면 엔도솜 막에 존재하는 막관통 단백질은 자신을 통로로 하여 세포질 안의 수소 이온을 엔도솜 안으로 유입시킨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5문단의 '이로 인해 엔도솜 내의 pH가 약산성이 되면 트랜스페린과 철 이온은 분리된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5문단의 '엔도솜이 형성되면 엔도솜 막에 존재하는 막관통 단백질은 자신을 통로로 하여 세포질 안의 수소 이온을 엔도솜 안으로 유입시킨다.'라고 제시된 부분과 '이렇게 분리된 철 이온은 단백질 통로인 DMT1을 통해 엔도솜 밖의 세포질로 방출되어'라고 제시된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 회

[21~24] <출전> 이준규, 「미시경제학」

21.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 파악하기

이 글은 노동 공급의 임금탄력성에 따라 경제적 지대가 달라지는 경제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노동 공급이 탄력적인 직종이 무엇인지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① 2문단의 '노동자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수입으로 이를 전용수입이라고 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5문단의 '진입장벽을 높여 바 집 단과의 자유경쟁을 억압하고 시장 전체의 비효율성을 부른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의 '노

동공급곡선이 수평인 경우는 '완전 탄력적인 경우'로 노동 공급에 최소성이 전혀 없어 이때 경제적 지대는 0이 되고 소득은 전부 전용수입이 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의 '노동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로 노동 공급이 고정되어 최소성이 가장 커지므로 소득은 전부 경제적 지대가 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4문단의 '노동공급곡선의 기울기와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은 서로 반비례하는데'와 3문단의 '비탄력적일 수록 임금 변동에 따른 노동 공급량의 변화가 작다.'를 통해 S에 비해 S'는 노동 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임금이 오르면 노동 공급의 증가량이 더 커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의 '노동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임금이 상승해도 노동자는 노동 공급의 양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희소해지고 경제적 지대가 커진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의 '노동공급곡선의 기울기와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은 서로 반비례하는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2문단의 '노동자의 총수입은 $L_0 \times W_0$ 로, A와 B를 합한 면적이 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의 '노동자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수입으로 이를 전용수입이라고 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 [출제의도] 글의 내용 적용하기

<보기>의 사례는 경제적 지대와 지대추구활동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5문단의 '경제적 지대를 늘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노동 공급을 제한하여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활동을 '지대추구행위'라고 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2문단의 '총수입 중에서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노동자가 추가적인 수입으로 인식하는 부분이며, 이를 경제적 지대라고 한다'를 통해 A는 전용수입 외에 추가로 얻게 되는 이익인 경제적 지대가 크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의 '노동자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수입으로 이를 전용수입이라고 한다.'와 2문단의 '총수입 중에서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노동자가 추가적인 수입으로 인식하는 부분이며, 이를 경제적 지대라고 한다.'를 통해 A의 전용수입은 300만 원, 경제적 지대는 200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5문단의 '경제적 지대를 늘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노동 공급을 제한하여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활동을 '지대추구행위'라고 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5문단의 '경제적 지대를 늘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노동 공급을 제한하여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활동'과 '이와 같은 행위는 진입장벽을 높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이해하기

㉠의 '부른다'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 관련된 다른 일이나 상황을 초대하다.'란 의미이다.
 ① '남이 자신의 말을 받아 적을 수 있게 똑박똑박 읽다.'의 의미이다. ② '어떤 방향으로 따라 오거나 동참하도록 유도한다.'의 의미이다. ④ '곡조에 맞추어 노래의 가사를 소리 내다.'의 의미이다. ⑤ '값이나 액수를 얼마라고 말하다.'의 의미이다.

[인 문]

[25~27] <출전> 소광희, 「시간의 철학적 성찰」

25.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시간 표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크로노스적 시간과 카이로스적 시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인간이 주로 자연에 의존하여 사는 경우에 시간은 천체의 순환과 함께 원환적으로 표상되는 크로노스적 시간관을 갖게 되고, 인간이 주로 역사에 의존해서 사는 경우 시간은 직선적으로 표상되는 카이로스적 시간관을 갖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우리는 이렇게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시간 표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여 두 가지 시간관을 통합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① 특정 개념에 대한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지 않다. ② 특정 개념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반박하지 않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내용도 나타나지 않는다. ③ 특정 개념에 대한 의문과 해결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특정 개념에 대한 통시적인 변화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26.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 이해하기

크로노스적 시간과 카이로스적 시간 모두 인간의 삶을 반영한 시간에 대한 표상이다. ㉠은 시간에 대한 원환적 표상으로 자연을 중시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고, ㉡은 시간에 대한 직선적 표상으로 역사를 중시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과 달리 ㉡은 자연보다 역사를 더 중시하는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4문단의 '인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삶은 최후의 심판과 심판 이후의 영원한 삶을 목표로 하여 진행되는 것이다.'에서 ㉢이 '삶의 종말 이후의 영원한 삶을 전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의 '시간은 천체의 순환과 함께 원환적으로 표상된다.'는 것으로 보아 ㉣이 주기적인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7. [출제의도] 핵심 개념 비교하기

<보기>의 플라톤은 천체의 규칙적 순환을 통하여 시간을 인식하는 원환적 시간 표상을 가지고 있다.
 ① 신의 섭리에 의해 예지되는 시간을 중시하는 것은 직선적 시간 표상이다. ② 플라톤은 자연의 흐름과 천체 운동을 다르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 ③ 플라톤은 천체 운동의 규칙성을 원환적인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다. ④ 플라톤의 시간 표상은 헬레니즘적이다.

[기 술]

[28~30] <출전> 김재홍, 「박막공화」

28.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이해하기

이 글은 진공 증착 기술을 활용하여 기관에 박막을 형성하는 과정과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문단의 '기관 내부에 들어 있는 원자는 상하좌우 모든 방향으로 대칭이어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안정된 상태이지만'을 통해 적절하지 않은 진술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① 1문단의 '안경과 카메라의 렌즈, 스마트폰의 터치 화면 등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십 겹의 박막이 형성되어 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의 '증발금속을 전기적 저항이나 전자빔 등으로 가열하면, 증발금속의 분자가 기체 분자가 되어 진공 공간으로 튀어나가게 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의 '기관 표면에 흡착된 기체 분자는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의 일부를 열로 방출하는데 이를 흡착열이라고 한다. 흡착된 분자가 많으면 흡착열이 커

지기 때문에 흡착열의 크기는 흡착 세기를 나타낸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의 '진공 용기 안 아랫부분에는 증발시킬 재료인 증발금속을 설치하고 윗부분에는 박막이 형성될 고체 기관을 장착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9. [출제의도] 도식화를 통해 과정 파악하기

3문단의 '가열 온도가 높으면 튀어나가는 에너지는 변하지 않지만'을 통해 적절하지 않은 진술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① 2문단에서 용기 내의 기압을 낮추는 이유는 '용기 내 공기에 있는 다른 물질들과 충돌을 하면 증발된 기체 분자가 박막을 형성할 기관 표면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적절한 진술이다. ③ 3문단의 '증발하는 기체가 많을수록 증착 속도를 높일 수 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의 '기체 상태로 흡착된 분자들이 고체화되는 증착을 통해 기관의 박막이 형성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의 '기관 표면에 있는 원자는 기체 분자와 결합하여 안정화되려고 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0. [출제의도] 원리의 이해와 적용

4문단의 '기관의 온도가 기체 분자의 온도보다 높으면 흡착된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기관 표면의 원자들이 안정화되려는 힘보다 커져 기관 표면에서 쉽게 탈착하게 된다.'를 통해 ㉠가 '탈착'이라면 ㉡는 '높아서', ㉢는 '커졌다'가 되고, ㉣가 '흡착'이라면 ㉤는 '낮아서', ㉥는 '작아졌다'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시]

[31 ~ 33] <출전> 김남조, 「정념(情念)의 기(旗)」

31.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구체적인 사물인 깃발을 통해 빈민과 갈등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함을 찾으려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①, ③, ④ 반어적 표현, 예찬적 어조, 대화체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기도 드린다' 등을 통해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태도인 구도적인 자세는 확인할 수 있으나, 구도적 자세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32. [출제의도] 시어에 의미 파악하기

'혼란과 열기'라는 빈민과 갈등의 마음이 평온한 마음 상태인 '연기처럼 덮여 오는 편안한 그늘'로 변화된 상황에서 '눈의 음악'으로 표현된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이 '듣고 있는가.'에 반영되어 있다.
 ① '보는 이 없는'과 '없는 것 모양'으로 표현된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과거의 모습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걸려 왔더니라.'로 나타내 있다. ② '혼란과 열기'로 표현된 빈민의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눈 오는 네거리'로 나서야 하는 화자의 고뇌가 '나서면'에 드러나 있다. ④ '늪우침 없는 일몰(日沒)'이 쌓여 가듯이 바른 삶을 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그 일어난다.'에 담겨 있다. ⑤ 긍정적인 대상인 '벗'과 마주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없을까.'라는 물음의 표현 속에 반영되어 있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시를 감상하기

이 작품에는 고독은 외로움과 결핍의 시간이며, 자신의 내면을 고민하고 더 나아가 내면의 성숙에 다가 가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시인의 고독

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시공(時空)'에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고독의 시간이 내적 고뇌 속에서도 내면의 성숙을 추구해 가는 시간이라는 작가의 고독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고전시가]

[34~36] <출전>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34.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및 효과 파악하기

이 작품에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은 드러나 있으나, 계절의 변화는 찾아 볼 수 없다.

① <1수>의 '금수(禽獸)나 다름없나'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한 의미의 강조를 찾아 볼 수 있다. ③ <11수>의 '바람은 절로 맑고 달은 절로 밝다'에서 대구 형식을 사용한 운율 형성을 찾아볼 수 있다. ④ <11수>의 '더욱 산뜻하고 깨끗하구나'에서 영탄적 어조를 통한 화자의 정서 부각을 찾아볼 수 있다. ⑤ <12수>의 '제월(霽月)이 구름 뚫고', '청광(淸光)이 푸른 시내 가운데에 비껴가'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5.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이해하기

㉠은 화자가 좇으려 하는 대상임을 볼 때, '화자가 추구하려는 대상', ㉡은 화자가 이것이 없을 때 산뜻하고 깨끗함을 느낀다는 내용을 볼 때, '화자가 떨쳐 버리려는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① ㉡은 화자가 시기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화자가 시기하는 대상'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화자는 티끌이 없는 상황에서 산뜻하고 깨끗함을 느끼므로 ㉠이 '화자의 감흥을 유발하는 대상'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은 화자가 좇으려 하는 대상이므로 '화자가 외면하고자 하는 대상'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화자는 티끌이 없는 상황을 즐기고 있으므로 ㉠이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대상'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6.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이 작품은 자연에 은거하면서 때때로 현실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해 고민하던 화자가 자연에서 진정한 맛을 느끼게 되면서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던 화자는 거문고 하나와 만권의 서책을 보며 산뜻하고 깨끗함을 느낀다. 이로 보아 '만권의 서책'은 자연 속의 만족감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이지 아쉬움을 드러내는 소재는 아니다.

① <1수>의 '평생에 원하는 것이 충효뿐'과 <보기>의 유교적 가치를 중시했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② <3수>의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세사(世事)를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와 <보기>의 속세를 떠나 자연에 은거하고자 했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③ <4수>에서 '강호'와 '임금' 사이에서 고민하며 '기로'에 서 있는 모습과 <보기>의 자연에서의 삶과 정치 참여 욕구 사이에서 번민했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⑤ <19수>에서 '강물'을 보며 '십년 전 진세일념(塵世一念)'을 녹이는 모습과 <보기>의 자연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서 갈등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현대소설]

[37~39] <출전> 한수산, 「밤길」

37.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아이들이 다급한 마음으로 답서리를 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②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일을 나란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아버지'가 밤마다 소리를 지르며 변한 모습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것이 살아오면서 겪은 자취인 내력을 설명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주로 과거형 어미를 사용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⑤ 학식의 두드러짐을 자랑하는 현학적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38. [출제의도] 종합적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이 작품은 '현상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우리집' 가족을 감시하는 억압적 상황과, 삼촌의 행방을 묻기 위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점차 물질적 가치관에 의해 유대감이 사라져가는 농촌 공동체의 현실을 어린 '나'의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때 물질에 집착하여 유대감을 상실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마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가 '들깨'의 '얼굴을 피가 흐르게 쥐어뜯'는 것은 자신의 가족이 의심당하는 사실에 대한 억울함과 울분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① '태종이'가 '우리집'에 와서 삼촌의 행방을 물으면서 허튼 수작을 하는 것은 물질적 욕망인 '현상금'에 사로잡힌 공동체가 한 가족을 감시하는 행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②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감시당하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밤마다 사소한 소리에도 문을 박차고 나가서 소리를 지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행동들은 한 가족에 대한 감시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나'는 '아버지'의 불만증이 답 도둑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핑계를 만들기 위해 답서리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가 일부러 답을 췌의 안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답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깨어나 답 도둑을 쫓게 함으로써 자신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행동임을 알 수 있다. ⑤ '나'는 '나'의 예상한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당혹감 때문에 오뎅을 흘리게 된다.

39. [출제의도] 소재의 서사 전개상 기능 파악하기

마을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감시하게 되면서 우리 가족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고통 때문에 '아버지'는 밤마다 소리를 지르게 되며, '나'는 꿈을 통해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게 된다. '나'는 '아버지'가 마을 사람에게 끌려가거나, 삼촌이 '아버지'를 끌고 가는 꿈을 꾸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가족을 억압하는 주체 또는 원인이 각각 마을 사람들과 삼촌이라고 여기면서 이에 대해 원망하며 불안해하는 심리와 관련이 있다.

[고전소설]

[40~43] <출전> 작자 미상, 「월영낭자전」

40. [출제의도] 서술 방식 이해하기

이 글에서는 인물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성격을 제시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① 호씨가 고난을 겪다가 결백함이 드러나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② '창검이 서리갈고', '취타와 북소리는 우레 같아'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④ '보는 자가 뉘 아니 참혹하게 여기지 아니 하리오', '산천초목이라도 슬퍼하겠더라', '천도 어찌 무심하리오'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각설', '차설'이라는 장면 전환을 알리는 상투어를 사용하고 있다.

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각설', '차설'이라는 장면 전환을 알리는 상투어를 사용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사건 전개 과정 파악하기

㉠에서 천자가 호씨에 대한 처벌을 거둔 것은 호씨가 스스로 죄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관의 등장으로 호씨의 무죄와 정씨의 죄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① ㉡에서 천자는 호씨의 음란함과 강상지죄에 대해 죄를 묻고 있다. ② ㉢에서 천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호씨의 진술을 듣고, 그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이후로 판결을 유보하고 있다. ③ ㉣에서 천자는 자사 위현과 경이사 집의 노비를 불러 호씨의 진술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호씨의 무죄를 판단하고 있다. ④ ㉤에서의 천자의 판단이 ㉠에서와 같이 바뀌게 된 계기는 호씨의 간계를 깨닫고 이를 경계하라는 정국공의 발언 때문이다.

42. [출제의도]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초월계의 선관은 호씨가 처형 당하기 직전에 현실계에 직접 등장하는데 이를 주변의 인물들도 함께 보게 된다. 그러나 호씨가 꿈을 꾸는 것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초월계의 선관이 나타나 때 대풍이 일어나고, 천색이 어두워지고, 향풍이 일어나는 등 자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는 사건 전개의 환상성을 보여준다. ③ 호씨는 초월계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는 호씨가 정씨와는 달리 선한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④ 초월계의 상제는 선관을 통해 호씨를 모해한 정씨의 처벌을 천자에게 명하는데, 이는 상제가 권선징악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⑤ 초월계의 선관이 한 말을 통해 본래 천상의 인물인 호씨의 고귀함이 나타나고 난 극복의 당위성을 드러내고 있다.

43.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 이해하기

호씨를 모해한 정씨는 자신의 죄상이 드러나자 자결하므로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의 뜻을 갖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 가장 적절하다.

①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이다. ③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 살던 굴 쪽으로 뚫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④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함을 이르는 말이다. ⑤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린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희곡]

[44~45] <출전> 이강백, 「복이 대가리」

44. [출제의도] 장르적 특징 파악하기

'자양'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 스펀터를 주는 행위는 '자양'이 '기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을 말할 때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기림'의 '벌어먹을, 이 창고 속을 보라구!'라는 대사로 보아 ㉡을 말할 때 못마땅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라는 것은 적절하다. ③ '좋은 건 다 이 속에 다 있'다고 생각한 상자 속에 뜻하지 않게 쓸모없는 '복이 대가리'를 본 '다령'은 당황한 상황으므로, ㉢을 연기할 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④ '제촉하는 경음기 소리'와 '아버지가 제촉해요'라는 대사로 보아 ㉣을 말할 때 보채는 듯한 말투로 말하라는 것은 적절하다. ⑤ '기림'은 이미 무대 밖으로 퇴장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을 말할 때 무대 안 '자양'에게 들릴 수 있도록 크게 말하라는

것은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의 적절성 판단하기

‘잔소리’에 대해 ‘기입’과 ‘자양’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인간의 정신을 상징하는 ‘자양’의 ‘이 창고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라구.’라는 대사로 보아, 육체를 상징하는 ‘기입’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이 육체를 통제하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무기력한 정신을 일깨우려는 시도를 보여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정신을 상징하는 ‘자양’이 ‘이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 있는 거지?’라고 말하며 절망하는 것으로 보아 ‘자양’의 독백이 기존의 삶의 방식을 확신하지 못하는 내면 의식의 붕괴를 보여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자양’과 ‘기입’이 함께 머무는 창고는 정신과 육체를 가진 한 인간을 무대화한 것이므로 ‘기입’이 창고를 떠난다는 행위가 한 인간이 육체를 상실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정신을 상징하는 자양이 ‘복이 대가리’를 보며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복이 대가리’라는 소품은 육체를 상실해 불완전한 자아로 남겨진 내면의 문제를 상징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정신을 상징하는 ‘자양’과 육체를 상징하는 ‘기입’이 ‘창고’라는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보아 ‘창고’라는 무대 공간이 한 인간의 이성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